

< 환 자 수 기 >

어둠과 빛의 기로에서

민 태 규

< 광주시 북구 북동 40 >

“눈” 눈은 인체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소중한고도 고귀한 창문이 갑자기 어둠에 가리어 어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영원히 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것 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빛”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그리고 “빛”의 위대함을 정상적인 “눈”의 소유자로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면서 인생의 희, 노, 애, 락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빠져리게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력을 잃고 실의와 좌절과 불안하고 허무감이 충만한 어둠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나는 천주님의 은총으로 한쪽눈이나마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제2의 삶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금년 59세인 나는 공직에서 물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그러니까 1977년 경부터 눈에 안개가 낀것 같으면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증세는 점차 심하여졌습니다. 나는 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결과는 백내장이며 수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나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장녀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광주의 모 의대병원에서 증세가 심한 왼쪽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희망도 가족들의 염원도 무참히 짓밟히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술후 1개월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바라고 또 바라든 시력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명을 한 것입니다. 병원주치의의 말은 시신경이 마비

되어 더 이상 시력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하기전에는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는데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의 정신적인 충격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후 나는 수술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신통한 방법은 없는 듯 하였습니다. 실명의 공포감에서 나머지 오른쪽 눈에 대한 수술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비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쪽 눈의 증세는 가속화되어 갔습니다. 사람은 물론 물체의 분간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출하면 비참의 연속이었습니다. 변화가에서 건널목을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신호등은 고사하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봄비는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에서는 신호등은 보이지 않지만 안전을 알리는 음악소리를 듣거나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런대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몇번이 오면 일러주시오. 하고 옆사람에게 부탁하여 타곤 하였습니다. 승차후 내려야 할 정류장을 알 수 없어 지나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차시에 친절한 안내양은 부축하여 내려주었습니다. 이때 안내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반면 어떤 안내양은 빨리 내리라고 등을 밀어 나를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안내양에 대한 야속한 마음은 순간적으로 분노로 변하고 비참한 생각에 잠시 발길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지하도계단에서 몇차례 실족한 후로는 지하도 통행이 무서워졌고 방향감각이 둔하여 반대방향으로 간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친지 친구분과 마주쳐 상대방에서 인사를 하여도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나는 그대로 지나친 적이 일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많은 분들에게서 본의아닌 오해를 받았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나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밤이되면 화장실 가기가 어려웠고 밥상에 놓인 반찬도 먹어보아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사람을 만날 경우 나는 미리가서 다방 입구에 자리잡고 기다리거나 내가 시간이 늦었을때에는 카운터에 부탁하여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도 목소리를 듣고 분간하곤 하였습니다. 나로서는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절망과 한탄의 나날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는 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대로 장님이 되는 것일까? 가족들의 생계문제와 자식들의 장래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중학 2년짜리 막내아들이 있지요. 안타깝고 가엽기만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울어진 가세에 나의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시련은 가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으로 위험한 고비를 한번 넘긴 일이 있는 처가 1983년 11월 말경에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막내의 장래문제 등 쌓이고 쌓인 문제에 대한 걱정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실의에 빠진 나는 이제 폐인이 되었구나 하는 좌절감 때문에 친구나 친지를 대하는 것도 피로워졌습니다. 책이나 신문 텔레비도 나의 벗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긴시간 나의 삭막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직 라디오만을 벗삼아 레시버를 귀에 꽂고 새벽 2,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옛날을 회상하며 문득 만일에 내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고 잠시 환상의 세계를 맴돌다가 현실을 되돌아 보고 다시 절망의 늪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나는 얼마전부터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길은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장님이 될바엔 차라리 수술을 받고 잘못되어 장님이 되는 한이 있다해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수술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여러사람들이 수술에 성공한 사례를 잘 알고 있는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쳐 한숨만 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급년 2월 10일경이었을까 혹시나 하고 막연한 기대감에서 적십자사 전남지사 박중내 사무국장님을 찾아가 나의 사정을 털어 놓았습니다. 박국장님은 무한히 걱정하시고 동지사보전과장님과 상의한 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셨고 2월 13일에는 박국장님의 주선으로 광주 흥안과병원에서 정밀진단

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왼쪽눈은 시신경의 위축과 마비로 재수술로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오른쪽 눈은 동공반응검사 결과로 보아 시력회복이 가능하다는 극히 희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 길로 적십자사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곳이 가톨릭센터 5층에 있는 천주교광주교구 인성회였습니다. 담당이신 김영자 선생님께서 수술일자를 2월 16일로 정해주셨습니다. 천주교 200주년 기념개안수술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때 마음속 깊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천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적십자를 찾게 인도하시고 나의 비참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성회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은총을 내리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 졌습니다.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남지 않은 2월 16일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2월 16일 오후 2시 평온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과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수술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끝난후 집도하신 홍우식 선생님께서 수술은 잘 되었으니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무한한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나는 희망과 불안과 흥분이 교차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오전 9시 치료실에서 눈에 가리어진 봉대가 벗겨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일말의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선생님이 내 눈을 깎습니다. 순간 눈앞이 환히 빛나면서 흐리기는 하지만 하이얀 선생님의 까운과 얼굴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확대경이 눈에 대어졌습니다. 몇년만일까? 선생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나는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수술 3일만에 시력검사 결과 0.7이라는 기대이상의 시력이 나왔습니다. 병원측에서도 놀

라워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날부터 병원에서 준 연습용 안경을 끼고 병원내를 나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환상의 세계에 온 것 같은 신기한 감마저 들었습니다. 치료는 순조로와 시력은 0.8에서 1.0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당초 2주간 입원예정이었는데 11일만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던날 나는 다시 감격하였습니다. 택시로 집에 가는 동안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버스와 택시, 언제 세워졌는지 고층건물이 준비한 원색의 거리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어느 중학생이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옆집 A군이라 하였습니다. 얼굴을 모른채 매일 상종했지만 나로서는 처음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무한한 감사함과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시력이 일정한 선에서 고정되어 안경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지 앞으로 2개월 정도는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습용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감은 있으나 우선 사람과 물체를 분간할 수 있고 책이나 신문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이상 더 바랄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퇴원후 방림동 천주교회에 입교하여 김신부님의 지도로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주님의 뜻에 따라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천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개안을 위해서 특별한 염려를 해 주신 적십자사전남지사 서정수 지사장님, 박중내사무국장님, 광주교구인성회 김영자선생님, 홍안과병원 홍우식선생님의 분에 넘치는 후의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끝맺고저 합니다.

(註: 현재는 영세받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